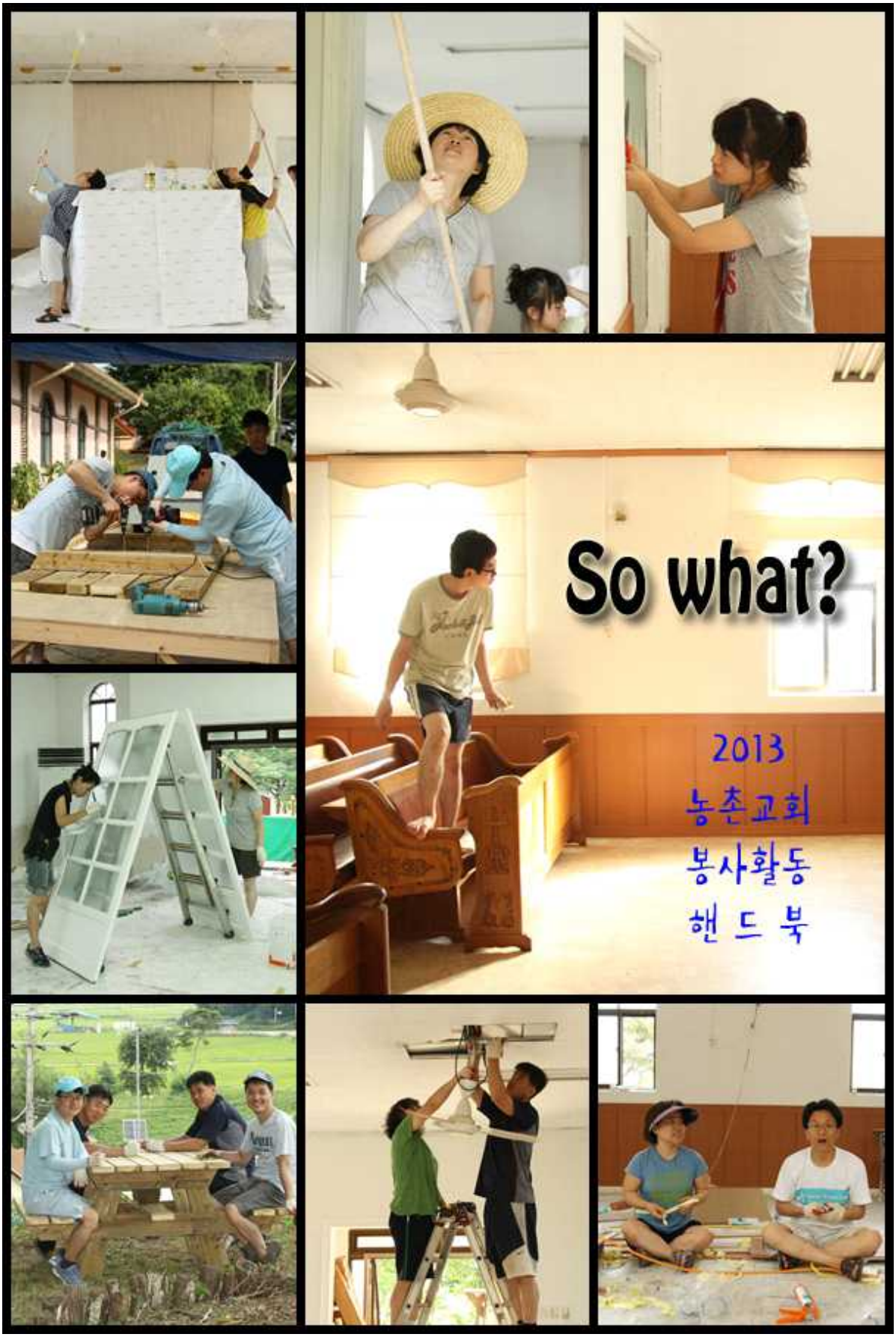

So what?
2013
농촌교회
봉사활동
핸 드 북

1. 전체 요약

1. 개요

◉ 기간 : 8월 15일(목) ~ 17일(토)

◉ 장소 : 동해참빛교회 (동해시 어달동 해맞이길 209-1)

◉ 주제 :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

◉ 주제 찬양 :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(524장)

◉ 간단일정표(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시간	목(8/15)	금(8/16)	토(8/17)
07	아침기도회 & 해돋이 & 아침 식사		
08~12	오전 활동		자유시간
12~14	점심 식사 및 휴식		
14~18	오후 활동		단합대회
18	저녁 식사		집으로 도착/해산
19~22	수련회		
22	저녁기도회 & 취침		

2. 동해 묵호 어달

◉ 날씨예보

	15(목)		16(금)		17(토)	
	오전	오후	오전	오후	오전	오후
날씨	보통	보통	보통	보통	보통	보통
기온	26/33		26/33		26/33	

◉ 먹거리

- 오징어회, 물회, 곰치국, 장칼국수 등

◉ 볼거리

- 일출, 해맞이길, 벽화마을, 묵호등대, 출렁다리(드라마 촬영장), 묵호어시장, 어달 해수욕장, 두타산 무릉계곡

3. 참빛 교회	◉ 동해참빛교회에 관하여 – 1987년 캄보디아 선교사이셨던 홍경표목사님께서 개척 – 윤만중목사님이 시무하시다가 2009년 뇌동맥경화로 투병 – 교인 12명, 대부분 노인분으로 구성 ◉ 김근배 목사님 – 2011년 설교목사로 봉사하시고 2012년 4월 부임 – 3자녀(중3, 중2, 초5)를 두시고 – 커피 로스터&바리스타로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
4. 개인 준비물	◉ 의류 및 신발: 작업용 옷, 운동화(버려도 되는 것), 평상옷(긴팔, 긴바지 포함), 신발, 샌들(바닷가), 아이들 수영복, 큰 타월, 수건 ◉ 개인 용품: 치약, 칫솔, 면도기, 로션, 화장품, 썬크림, 알로에, 개인 상비약, 얇은 이불, 성경책, 모기장, 모기약 ◉ 참가자 역할 – 남자 성인(8명): 몰딩/보수, 설거지, 운전 – 여자 성인(8명): 페인트/청소, 식사준비, 자녀보호
5. 주의 사항	◉ 더위를 이기는 방법 –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하는 것은 소변과 땀 뿐! 물을 자주 먹자! – 오미자차, 수박, 오이, 비타민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섭취하자! –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취하고 더위먹은 증상이 나타나면 올스톱! ◉ 기타 –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부모님 중 한분이 곁에 계셔야 합니다 – 현금, 신용카드 등 귀중물품은 개인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
6. 기도 제목	◉ 참빛교회가 갑절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◉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◉ 성령안에서 하나가 되며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◉ 물질적 지원 또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

2. 세부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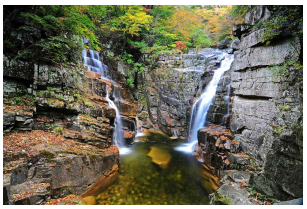
◎ 첫째날(8/15)

1. 아침	◉ 아침기도회 : 명노일 목사님 ◉ 해돋이 : 묵호등대
2. 오전 오후	◉ 예배당 정리 ◉ 평상짜기 ◉ 페인트칠하기 ◉ 몰딩하기
3. 저녁	◉ 수련회1 "동네 한바퀴" – 찬란한 유산 "구름다리" 건너기 – 일출로 따라 걷기 – 어달해수욕장 밤바다 걷기

◎ 둘째날(8/16)

1. 아침	◉ 아침기도회 : 명노일 목사님 ◉ 해돋이 : 묵호등대
2. 오전 오후	◉ 예배당 꾸미기 ◉ 데크짜기 ◉ 작은 방 꾸미기 ◉ 청소하기
3. 저녁	◉ 수련회2 "이건 제가 할래요, 느낌 아니까!" – 5분토크 – 스킷드라마 꾸미기 – 단체사진찍기

◎ 세째날(8/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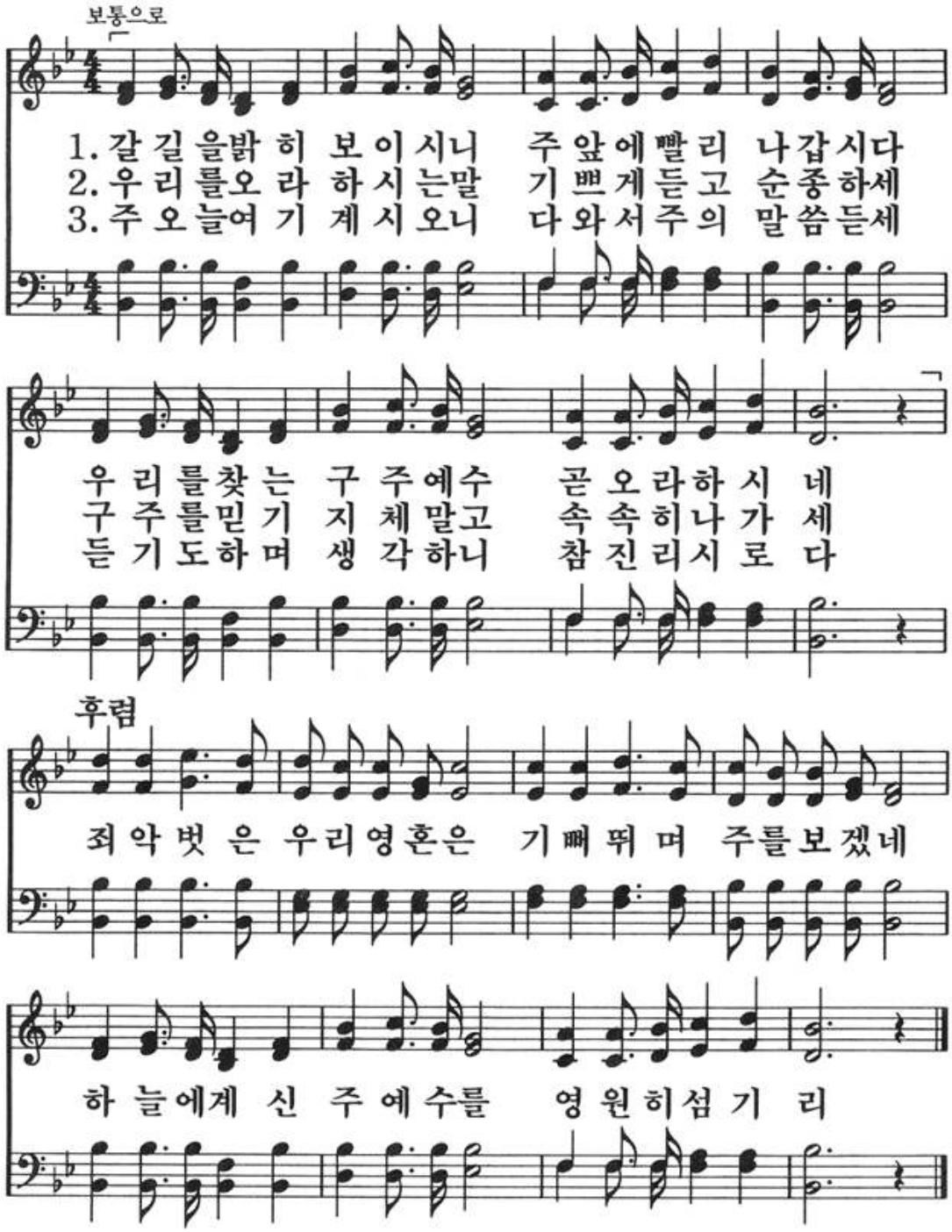
1. 아침	◉ 아침기도회 : 명노일 목사님 ◉ 해돋이 : 묵호등대
2. 오전 오후	◉ 자유시간 – 무릉계곡 ◉ 단합대회 – 정선냇가 

3. 김근배 목사님 글 한편

	커피 냄새 가득한 거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생각만 갖고 커피 글을 쓴다. 방금 가마솥에 케냐 산 피베리 생두를 볶았다. 여러분은 별로 경험하지 못할 재미를 나 혼자 재미본다. 커피 볶는 데는 화력의 세기가 중요하다. 내 경우 직화(불이 직접 원두를 태운다) 방식이어서 더욱 그렇다. 화력의 세기에 따라 로스팅(볶기) 시간이 달라진다.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가름한다. 성격이 '빨리(성급)'와 '멀리(욕망)'인 사람은 큰 화력에 짧은 시간을 들여 적절한 효과를 얻으려 한다. 성격이 '깊이(인내)'와 '높이(고귀)'인 사람은 약한 화력에 긴 시간을 들여 커피가 내는 변화 과정을 즐긴다. 적절한 효과는 덤이다. 하지만 커피는 태워져야 한다. 그래야 생두에서 원두가 된다.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(죽어야) 열매가 나듯이. 커피는 불을 피할 수 없다. 마치 신자가 성령을 피할 수 없듯이. 불로 지핀 커피는 그 사람을 닮아 그 사람의 커피로 태어난다. 신자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자. 우리 주변에는 불에 탄 커피처럼 성령님께 탄 신자가 있다. 성령께서 태운 신자라면 믿을만하지 않겠는가? 그리고 성령께서 태워 만든 신자라면 그 신자에게서 성령의 맛도 나지 않겠는가? 성령의 맛이 들어있는 신자가 글을 썼다면 그 글에도 성령께서 정성드린 커피 향내가 있겠다. 성령께서 손수 볶은 맛 – "특강 소요리문답"(황희상 저) 책에서 찾아 음미하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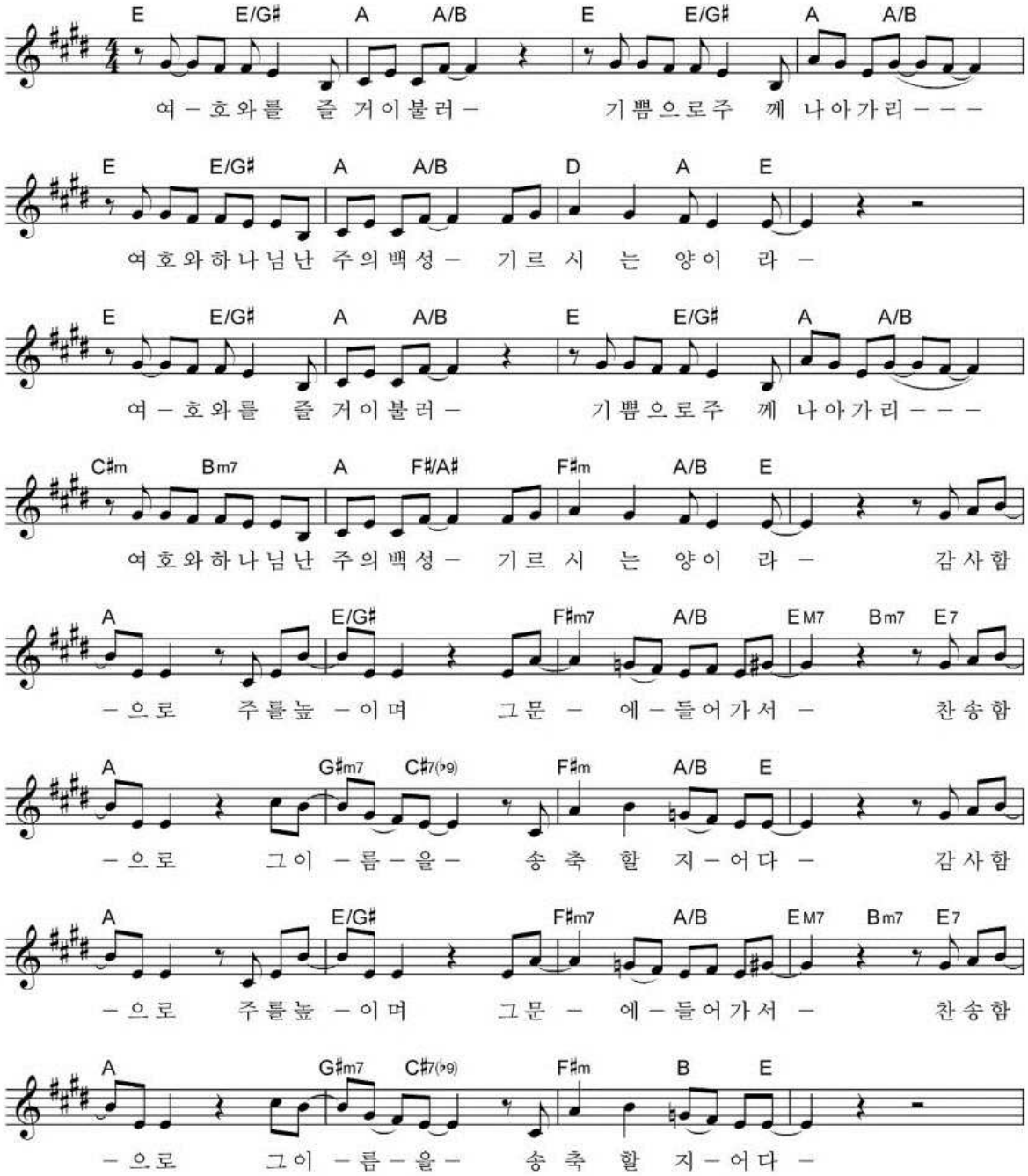
4. 찬양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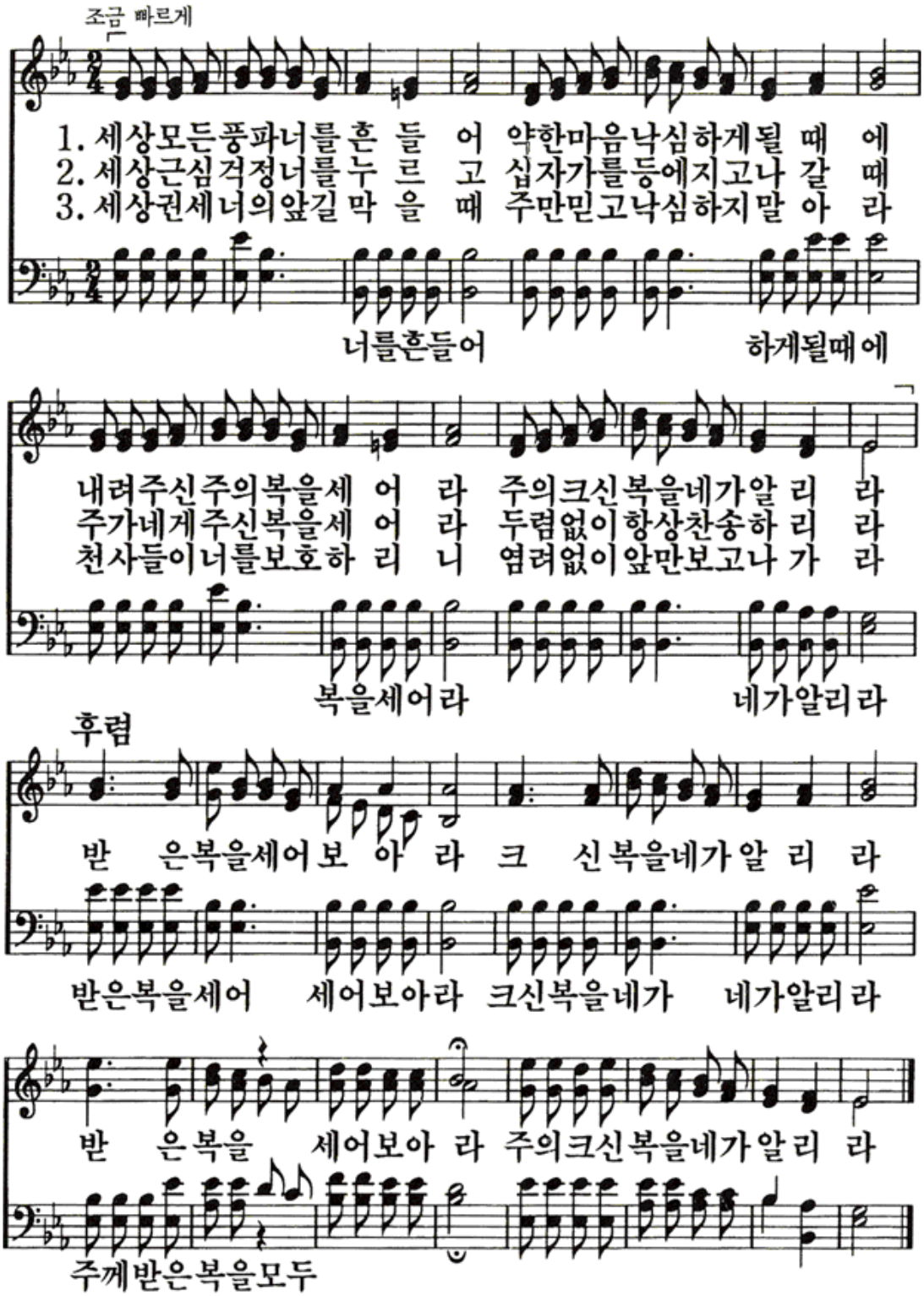
524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(통일 313)



감사함으로

Words & Music by
심종호



Copyright ⓒ 심종호. All rights reserved. Used by permission.
이 악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CCMSCORE 허락 없이 무단 복제, 발췌, 인용등을 엄금합니다.
Distributed by www.ccmscore.co.kr

429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(통일 489)